

현실에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인데도 못 얻는다

본 문 요한계시록 3장 17-18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도 얻고자 하지 않기에 못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은 제일 먼저 선생으로부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주는 말씀 수준을 만족하게 여기면 더 깊은 말씀과 더 차원 높은 말씀을 못 받는다. 고로 더 깊고 더 높은 말씀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여라. 더 만족하는 말씀을 내게 찾고 받아서 섭리사와 이 시대에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섭리인들은 말씀을 더 높이 듣고 더 깊이 듣도록 기도하여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개성대로 현실에 만족할 것이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갈 것도 있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뛰고 더 수고하고 더 힘써라. 그리하여 더 좋은 것을 얻고 그것에 만족하여라.” 하셨습니다.

선생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30년 이상 날마다 주님을 위해 역사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현실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얻도록 하여라. 그리고 얻은 것은 섭리세계에 쌓아 놓고 더 이상적인 것을 위해 더 뛰고 달려라.” 하십니다.

섭리인들은 모두 젊으니 뛰고 달려야 됩니다.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이들입니다. 섭리세계는 새로운 역사이므로 이 역사로 온 사람들은 모두 젊습니다. 모두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얻도록 더 뛰고 더 바라고 더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없는데 빚내서 무리하게 사고, 무리하고 먹고, 지나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더 찾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 기도하고 구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생명들을 얻으려면 과거 방법과 경험과 기초 더 하기, 주님의 새로운 방법과 자기 노력과 수고와 간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거 방법, 경험, 기초 + 주님의 새로운 방법과, 자기 노력, 수고, 간구의 조건 = 더 좋은 것, 더 좋은 생명들)

‘도전에 대한 비밀’은 주님 뜻 안에서 자꾸 해 버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고, 프로가 되어 결국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세운 것이 주님의 뜻이어야 주님이 함께 행하시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더 먹음직스러운 동물을 사냥합니다. 자기가

목적한 먹잇감을 사냥하러 쫓는 길에 그보다 못한 동물이 옆에 지쳐 쓰러져 있어도 기어이 처음에 자기가 찍어 놓은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동물도 자기 눈에 돋보이고 살진 먹잇감을 보면 사람처럼 희열을 느껴 그 먹잇감을 쫓는 데 더 힘이 생깁니다. 자기 눈에 별로인 동물을 사냥하면 잡아도 먹다가 맙니다.

사람도 환경이 별로인 곳은 구경하다 맙니다. 더 좋은 경치를 보면 마음과 몸이 거기 빠져서 더 힘이 납니다. 고로 다니면서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면서 조건을 세우고 수고하면 오히려 힘이 솟고 영의 능력까지 옵니다. 사람이 큰 꿈을 가져야 마음도 몸도 청춘도 날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상1>

<자막>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얻어라.

① 계속 반복하여 도전하여 더 좋아지는 것

돌조경 무너지면 또 쌓는 것 / 안 될 때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

<자막과 설명> ‘더 좋은 것을 얻는 비밀’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새 것을 찾고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세우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② 위의 영상 조금 더 보여 주면서 다음 자막과 설명

<자막과 설명> ‘도전에 대한 비밀’은 자주 반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③ 동물이 사냥하는 장면 골고루 보여 주기

<자막과 설명> 동물도 사냥할 때 항상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사냥합니다. 자기만족을 위해서입니다.

④ 옛 문화 예술 → 발전된 문화 예술

구식 군사 무기 → 신식 군사 무기

옛날 차 → 현대식 차, 옛날 비행기 → 현대식 비행기

<자막과 설명>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찾았기에 문화 예술도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옛 무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았기에 더 좋은 군사 무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찾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⑤ 월명동 처음에 석회석 돌 쌓은 것 만족하지 않고 빼내고 좋은 돌로 다시 쌓는 모습

<자막과 설명> 월명동 돌조경도 석회석 돌로 쌓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기에 다 빼내어 좋은 돌로 다시 쌓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⑥ 선생 더 좋은 것을 향해 행한 것, 삼선교 때부터 현재까지 (짧게 한 컷씩만 보여 주기)

<자막과 설명>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면서 조건을 세우고 수고하면 힘이 솟습니다. 큰 꿈을 가지면 자기 인생을 날리면서 살게 됩니다.

<핵심 중요 말씀>

선생은 처음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을 얻고, 세상 명예를 얻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인생에 만족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길과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지만 또 더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고로 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 역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찾았습니다. 고로 인간의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가니 예수님은 땅에서 중심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 재림 역사를 하시면서, 앞날에 최후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간의 육신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이 먼저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서 변화되어 휴거된 몸이 되어야만 그 영도 육신이 행한 의를 따라 변화되어 주님을 모시고 신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육신 변화를 이루고 그로 인하여 영혼 변화를 이루어야 주님을 모시고 신부로서 살다가 때가 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변화된 영이 주님을 맞아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을 가지고 재림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신령한 자, 곧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니 예수님은 땅에서 육신들을 가지고 재림 역사를 펴시고, 육신의 행위에 따라 변화된 영을 재림의 날에 휴거시켜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육의 사람을 통해 육의 사람들에게 신부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하면서, 주님은 지상에서 사람의 육신을 쓰시고 재림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나고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면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혼을 온전히 만든 자의 영혼을 휴거시켜 하늘에 오르십니다. 신부로 준비되어 휴거된 영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1000년 동안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을 휴거시킨 육신은 육신의 수한 전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휴거된 몸으로 주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신약 2000년 역사같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진행됩니다. 주님은 땅에서도 하시고 하늘에서도 하십니다.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간 영들은 특별한 영이라서 땅에 사는 자기 육과 늘 교통하며 삽니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아주 영의 나라로 갑니다.

신약 역사도 주님의 육신이 돌아가시고 그 영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은 영으로 계속 계시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역사는 성약 새 역사를 바라보며 자녀급 믿음에서 그 나름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약 역사는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실체 세계 역사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주님의 신부 되어 사는데, 어디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현혹됩니까? 먼저 육의 변화를 이루고, 그로 인하여 영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온전한 재림 역사를 주님은 지금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영상2>

<선생이 더 좋은 것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

① 해당 영상1

<자막과 설명> 선생도 처음에는 배고프고 헐벗고 잘 곳이 안 좋으니 잘 먹고 잘 입기를 원했고 좋은 집과 명예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얻기도 전에 그 꿈을 버렸습니다.

② 해당 영상2

<자막과 설명>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참 인생길이신 영원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③ 해당 영상3

<자막과 설명> 그리고 시대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④ 해당 영상4

<자막과 설명> 그다음에는 주님의 재림을 나와 모든 섭리인들이 예비하며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⑤ 해당 영상5

<자막과 설명>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찾아, 육계와 영계의 깊은 말씀을 전해 주는 더 좋은 말씀의 세계를 발견하며 가고 있습니다.

⑥ 해당 영상6

<자막과 설명> 이제 섭리사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인 일이 있으니, 시대 말씀을 전하여 수많은 청중들이 오게 하는 일입니다. 고로 선생도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고 뵙니다.

* 전환 <재림역사>

⑦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가니 주님이 땅에서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먼저 재림역사를 하십니다.

⑧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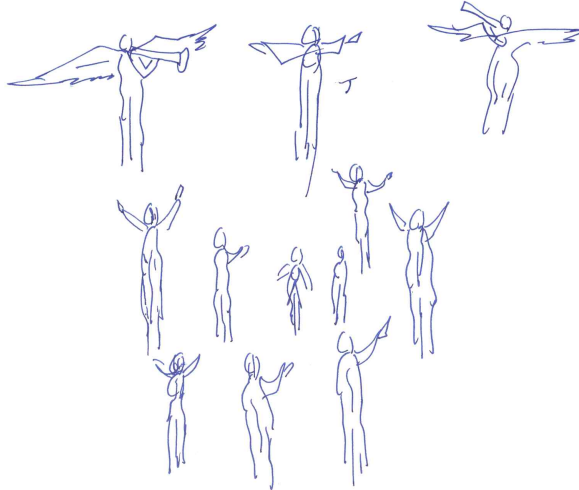
<자막과 설명> 우리의 영은 육신이 땅에서 주님을 맞고 사는 그 의를 받아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예비하고 살다가 /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갑니다.



⑨ 지난 30년 섭리역사 하신 것

<자막과 설명> 주님은 지난 30년 동안 지상에서 육적 휴거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육신 변화 역사, 생각 변화 역사, 거듭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섭리사 수백 명의 계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사는 이미 30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한 때를 중심해서 역사해 왔다. 다른 자들은 육 영생과 육 휴거를 외친다. 육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휴거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년 전부터 육이 휴거되고 육이 영원히 산다고 외쳤으나, 단 한 명도 그 교리대로 안 됐습니다. 대개 성경을 벗어난 자들이 “육이 안 죽는다. 육이 영생한다.” 라고 합니다. ‘영생’을 육적으로 말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 부활, 육 휴거, 육 영생, 육이 늙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교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주장한 것입니다. 육이 부활하고 육이 안 죽는 역사는 6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이 부활된다. 영이 하늘을 난다.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 영이 안 늙는다. 영이 영원히 산다.’ 하면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육이 공중에서 훨훨 난다. 육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육이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 신비해서 끝까지 듣고 자기도 육이 있으니 그 교리를 따라갑니다.

선생은 10대 때도 육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기에 육 부활, 육 휴거, 육 영생 교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고등 학문은 배우지 않았어도 그것은 알았습니다. 세상 공부만 많이 하고 정작 머리가 안 돌아가니 세상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일 짐승들에게 “짐승들아. 내 말을 들어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이 안 죽고 늙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믿고 우리 말 듣고 천국 가자.” 하면, 곰이 가슴을 치고 킹콩은 젖가슴을 치면서 “성경에 그같이 무식한 말이 어디 있느냐. 누구는 성경을 안 읽은 줄 알아? 그런 주장은 짐승만도 못한 주장이다. 너의 말은 인간 짐승 말이다.”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뱀은 반갑다고 하며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네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네 온몸을 감을 테니 나와 같이 살자. 우리는 연분이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말하기를 “오늘 누가 주동해서 모였느냐.” 하고 으르렁대면서 “다 해산하여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인생 살 만큼 뜻있게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인생, 제때 살고 제때 죽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다.” 하셨습니다. 제때 살다가 제때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뇌도 그만큼 쇠퇴합니다. 의식과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육도 늙고 뇌도 늙습니다. 고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100년은 정한 시간이며 이치입니다.

만일 사람이 안 죽고 늙어서 피골상접이 되고 뇌가 쇠퇴하고 의식과 생각 없이 사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안 죽고 100년, 150년, 200년, 300년, 500년, 700년, 1000년, 10000년, 10만 년 산다

면 그것같이 멋있고 징그럽고 흉측하고 보기 싫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에게 오는 편지 중에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사람 같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생스럽고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게 해 달라고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오죽해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육신은 정한 시간 100년입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인생 수한 100년 동안 300년, 500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 먹고 시간 되면 죽는다. 그러나 살았을 때 나와 5배 더 일하면 100년 인생 500년 산 것과 다름없다.”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2~3배 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인간의 수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육이 오래 살기 원하고 육이 영생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영의 세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200년, 300년 살아야 할 텐데, 아마 100년이 넘으면 땅바닥을 지팡이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킁킁’입니다.

<영상3>

<성구 자막>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전 15:50)

①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시대 유대 종교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육신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육의 영생을 외치고 육의 휴거를 외치는 자들은 지난 100년 전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육의 휴거를 외치던 자들은 모두 죽었거나 자신도 계속해서 늙고 있습니다.

②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선생은 10대 때도 육신이 늙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자들을 정신이상자로 보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육신이 안 늙는다. 안 죽는다.’ 하는 자들은 무지한 사탄의 주관을 받은 자들로 보고 따라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③ “육이 영생한다. 육이 안 죽는다. 육이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믿고 우리 말 듣고 천국 가자.” 라고 외치는 사람 / 이 모습을 보고 곰이 가슴을 치고, 킹콩이 젓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고 말한다. (본문 내용 참조) / 뱀은 그에게 와서 말한다. “너는 내 생각과 같으니 내 편이네. 나와 같이 살자. 너는 나와 한 쌍이야.” 하며 그 몸을 칭칭 감는다.

④ 사람이 제때 태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살다가 자기 영혼 구원시켜 놓고 제때 아름답게 죽는 모습 / 100세 넘은 사람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체가 흉측하게 변한 모습 / 150년, 200년, 1000년 산다면? (표현할 것)

<자막과 설명> 인간은 창조주의 창조 법칙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구원받고 살다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고 때가 되어 늙어 죽는 것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순리의 법칙입니다. / 인간이 100년만 넘게 살아도 기능이 마비되고 뇌가 퇴화되어 정신이 없고 힘이 없어 쓰러지고 얼굴과 육체는 다 망가져 흉측하게 됩니다. / 만일 사람이 150년, 200년, 500년, 1000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막> 인생, 제때 살고 제때 죽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다.

육이 영생한다고 하는 자들의 말은 절대 믿지 말고 듣지도 말아요. 또 육이 영생한다고 하는 중

교는 절대 가지 말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했습니다. 육의 변화를 통해 ‘영’이 그 의를 받아 변화되어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자들도, 사도들도 다 늙어서 죽고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영계의 비밀을 보이시고 천국도 보여 주시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14만 4천 무리’라는 예비된 주님의 신부들에 대하여 기록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육적인 것을 사모하고 육적인 것을 중시하는 자들은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런 교리에 만족하니 더 좋은 영의 세계를 얻지 못합니다.

종교는 ‘영의 세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을 구원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을 구원하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면 인생 100년은 2시간 24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을 살리러 오셨겠습니까?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요 6:63, 히 9:27)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자들은 매일 늙어 꼬부라지고 얼굴이 주글거리면서도 육이 영생한다고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야 그 뜻을 압니다. 자기를 메시아라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를 중시해서 성경을 풀고 따르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육도 영도 잘못된 세계로 갑니다.

<영상4>

①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육신이 안 죽고 영생한다. 안 늙는다. 우리는 육신이 안 죽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성경을 떠난 자들입니다.

② 선지자들 묘, 사도바울 묘

<자막과 설명> 2011년 현재까지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다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주님의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자막> 종교는 ‘영의 세계’가 중심이다.

③ 육신을 통해 영 구원

<자막과 설명>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육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영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④ 표현

<자막> 육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 자기 육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어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현재에 만족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못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 핵심 중요 말씀 -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차원을 높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어 구원 역사를 펴 오시며 뜻을 이루셨다.

아담 이후 구약 4000년 형벌 기간이 세계적으로 끝나고 나 예수가 와서 새로운 신약 말씀을 주면서 새로운 구원 역사, 곧 신약 역사를 펴 왔다. 그러나 구약 육적 신앙에 만족하고 산 자들은 보다 영적인 역사인 신약 역사 자녀급 복음 역사에 오지 못함으로 시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신약 2000년 역사는 새 역사로서 구약에 비하면 영적 역사였다.

이제 약속한 나의 재림을 놓고 신구약을 결산하는 마지막 하늘의 1000년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신약 2000년 역사는 새 역사인 성약 역사에 비하면 육적 역사다. 성약 1000년 역사는 ‘사랑’을 중심한 신부급 역사로서 최고 영적 역사다. 그러나 신약 역사에 만족하면 사랑을 중심한 더 좋은 성약 역사를 얻지 못한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늘과 사랑이 일체 되지 못하면 구원 역사가 무슨 보람 있느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4년, 2년 동안 사랑했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으로 대하고 형제로 대한다면 그동안 사랑한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내 아버지와 나 예수는 지상의 구원 역사를 에덴에서 ‘사랑’으로 시작했다. 고로 사랑으로 7000년 역사를 끝낸다.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시작했으니 사랑으로 끝낸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하였다.

이 1000년 역사를 시작하라고 ‘섭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너희 선생은 이 역사를 아는 중심자이니 내게 ‘성약 교회, 성약 역사’라 하자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식하니 ‘섭리’라고 하다가 섭리 역사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약 역사’라 한다고 말했다.

성약 역사란, 신약에 약속한 나의 약속을 이루는 역사라는 뜻이다. 구약의 약속은 내가 신약에서 이루었다. 신약의 약속은 역시 나 예수가 성약에서 이룬다. 신약 역사도 성약 역사도 나 예수가 이룬다.

<영상6>

<자막> 하나님은 때를 따라 차원을 높여 새로운 구원역사를 시작하셨다.

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육신 출현

<자막과 말씀> 항상 이 땅에 새로운 구원역사가 시작되려면 먼저 하늘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 예수가 강림해야 한다. 초림 때도 그러했다.

그러나 신약 새 역사로 오지 않았던 자들

<자막과 말씀> 그러나 구약 종급 역사에 만족한 자들은 신약 자녀급 역사로 오지 못했다.

②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영이 사명자의 육을 통해 역사 시작

<자막과 말씀> 재림 때도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이 오시고 나 예수가 와야 이 땅에 새로운 구원역사가 일어난다.

성약 1000년 섭리역사

<자막과 말씀> 성약 1000년 역사는 신구약을 결산하는 마지막 역사로서 ‘사랑’을 중심한 신부급 역사요, 최고 영적 역사다.

그러나 성약 새 역사로 오지 않는 자들

<자막과 말씀> 그러나 신약 자녀급 역사에 만족한 자들은 성약 신부급 역사로 오지 못하고 있다.

<자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 21:6)

③ 구약역사의 시작 ‘에덴’ → 마지막 재림역사까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내는 것 표현

<자막과 말씀> 내 아버지와 나 예수는 지상의 구원역사를 에덴에서 ‘사랑’으로 시작했다. 고로 사랑으로 7000년 종교 역사를 끝낸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니 사랑으로 끝낸다.

<자막>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서 이루고, 신약의 약속은 성약에서 이룬다.

언제부터 신약에 약속한 나의 뜻을 이루었느냐. 신약역사는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나의 재림의 역사, 곧 성약역사는 앞에 너희 선생이 전초 말씀에 말한 대로 땅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재림 주관권 때부터 시작된다.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휴거되지 못하니 땅에서 휴거 역사를 한다. 나 예수가 중심이 되어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재림 역사를 하는 것이다.

영은 항상 합당한 육을 쓰고 행한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쓰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한 인간도 자기 영은 자기 육신을 쓰고 영이 행할 것을 행한다. 나 예수도 나의 육으로 쓸 자를 키우고 기르고 준비시켜서 그 몸이 합당한 나의 몸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 나의 일을 한다. 나의 육이 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의 육신도 나는 개성대로 나뉘어가지같이 쓴다.

천국은 질서의 세계다.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도 질서의 세계가 된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세계가 질서의 세계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다. 육적 구약역사 먼저요, 그다음은 신령한 역사인 신약역사다. 그다음에는 더 신령한 역사인 성약 재림역사다.

성약 재림역사는 신부 역사로서 나 예수가 신랑으로 와서 진행하는 역사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진행하시는 역사로서 신구약을 결산하는 역사요, 아담과 하와 때 깨진 뜻을 복직하는 사랑의 역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 예수의 역사다. 항상 나 예수가 오든지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땅에 강림하셔야, 작든지 크든지 하늘 역사가 땅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이미 너희가 배운 대로 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 시대를 풀어 섭리역사를 해 온 것이다. 섭리역사는 갈수록 지구촌에 뻗어 나간다. 섭리역사는 30년이 됐으니 이제 한창 크는 역사다. 1세기를 넘어가면 기틀을 잡아 커진다.

고로 나는 이 시대에 합당한 나의 계시의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곧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성령집회 말씀, 기타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 육과 영이 변화되어 나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 말씀들은 기록하여 책으로 남겨 성약역사를 위해 제2의 성경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 예수의 말이 곧 성경이 아니냐.

너희는 당세에 내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1000년 성약역사가 진행되는데, 후에는 당세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없으니 성경같이 성약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야 된다. 성약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면서 먼저 육의 사람부터 성약역사를 펴는 것이다. 고로 나 예수가 자세히 말씀하고 자세히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시대를 보니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 모두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간구하고 행하여라. 전도의 복음 역사도, 말씀 역사도, 성령집회도 더 이상적으로 행하도록 연구하고 행하여라. 각 나라에 다니면서 각 나라 사람들과 하나 되어 색다르게 확실하게 멋있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하면 더 좋은 생명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너희 선생에게 자연의 교회를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게 했다. 자연성전을 쓰는 자들이 오래 쓰면 그 가치를 모른다. 기성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연성전에 처음 와 보고 얼마나 놀라고 좋아하는지 아느냐. 가치를 알아라. 섭리인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은 더 귀히 보고 좋아한다. 요즘 온 자들은 세계적인 자연의 대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른다.

자연성전 안에도 역사 박물관 등 수십 가지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모두 너희를 통해 만든 나의 작품들이다. 그곳에 자연성전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너희 선생이 아는 시간만 해도 55년이 되었다. 너희 선생은 어렸을 때 동그래산의 한 소나무를 기를 때부터 ‘예수님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계산한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 자연성전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때가 짧게는 55년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도 배경 따라 환경 따라 양들같이 자유로운 세계, 더 좋은 성전에서 나 예수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만족하고 더 힘이 나서 육도 영도 지치지 않고 살게 된다.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리니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자기 몸 건강, 운동, 설교, 강의, 전도도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예술도 더 좋게 만들어라. 그러면 더 좋게 되어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저마다 나 예수가 쓰기에 더 좋게 만들어라. 영의 것, 육의 것 모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예비하면서 더 이상적으로 만들자.

너희는 구시대에 매이지 아니함으로 새 역사에 왔다. 하늘이 솟아나게 새 역사의 자부심을 가져라. 보다 새것과 옛것이 얼마나 다른지 보아라. 말씀도 비교를 해 보고, 너희 사고와 생각도 보아라. “이 역사가 신약역사와 무엇이 다르냐.” 하는 자들은 나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너희 선생도 제대로 모르고, 시대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아직 나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은 자들이다.

새로운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축복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살롬.

<영상7>

① 구약 다음 신약 / 신약 다음 성약

<자막과 말씀> 먼저는 육적인 역사요, 그다음은 신령한 역사다.

<자막>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② 먼저는 육 구원, 그다음에 육을 통한 영 구원 /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사랑하며 구원받고 살고, 그다음에 영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땅에서 신부가, 하늘나라에서도 신부다.)

<자막과 말씀> 육은 천국에 가지 못하니 먼저는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휴거 역사를 한다. 나 예수가 중심이 되어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재림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땅에서 나를 맞은 대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나와 함께 살게 된다.

② 섭리역사 - 신부 역사

<자막과 말씀> 성약역사는 신부 역사로서 나 예수의 역사요, 때를 따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③ 자연성전

<자막과 말씀> 더 좋은 환경의 교회를 얻고자 했을 때 자연성전을 주었다.

③ 섭리사 우리들의 모습

자기 몸 건강, 설교, 강의, 예술 더 이상적으로 행하는 것

전도 : 기존에 있는 사람들 | 새로운 사람들

점점 커져 가는 섭리사의 모습 (불어나는 모습 표현)

<자막과 말씀> 나의 섭리 역사를 보고 따르는 복 있는 자들아.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이상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 있는 자로만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자들을 전도하자. 새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게 시대 복음을 전하자.

<자막>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 더 좋은 것을 찾고 얻어라!